

The Gospel of Mark

Sermon 31 – Sermon Notes

Title: “Come here to hear”

Scripture: Mark 7:31-37

Date preached: April 2nd 2023

Scripture: Mark 7:31-37

31 Again, departing from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He came through the midst of the region of Decapolis to the Sea of Galilee. 32 Then they brought to Him one who was deaf and had an impediment in his speech, and they begged Him to put His hand on him. 33 And He took him aside from the multitude, and put His fingers in his ears, and He spat and touched his tongue. 34 Then, looking up to heaven, He sighed, and said to him, “Ephphatha,” that is, “Be opened.”

35 Immediately his ears were opened, and the impediment of his tongue was loosed, and he spoke plainly. 36 Then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tell no one; but the more He commanded them, the more widely they proclaimed it. 37 And they were astonished beyond measure, saying, “He has done all things well. He makes both the deaf to hear and the mute to speak.”

31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과 데카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오셨다. 32 그때 사람들이 귀 먹은 반병어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33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또 손가락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다. 34 그러고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한숨을 쉬시며 “에비다!” 하고 오치셨다. 이것은 “열려라” 는 뜻이었다. 35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제대로 말을 하게 되었다. 36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소문을 널리 퍼뜨렸다. 37 사람들은 다 놀라 “참 굉장한 일이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병어리를 말하게 하다니!” 하고 감탄하였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take a moment to review what we looked at in our last sermon.

Last time we examined the account of Jesus and the Syro-Phoenician woman. It marked a very interesting and significant part of the Lord Jesus' earthly ministry. As far as we know it was the only time that Jesus travelled outside the national borders of Israel. For most of His period of public ministry He based himself in Capernaum and spent His time in northern Israel. Here though we see Him travel around 40 miles north in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These two prominent cities were part of the Roman province of Syria and Phoenicia, collectively known as Syro-Phoenicia. The exact reasons for why Jesus left at this time are not given to us. We are left to speculate, or make an educated guess. As we have seen Jesus had become a magnet for the people. Wherever He went people were drawn to him.

He always had compassion on people and never just sent them away, but we must imagine that it was both physically and emotionally exhausting.

It's understandable then that He felt the need to rest and recuperate. Also we should think about Jesus' long term objectives. He knew that His time on earth would be short. In that short time He needed to train and equip a team of men to carry on the gospel mission. So perhaps He felt the need to find a place where He could teach the disciples without being disturbed. So seeking peace and solitude Jesus and the disciples travel up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and find a house in which

to stay. They were not destined to be left in peace for long.

News it seems had escaped regarding Jesus' whereabouts. Soon a woman is knocking on the door and wanting to speak with Jesus. Mark describes her as being a Greek. As I said last time this was not because she originally came from Greece. She was in fact a Syro-Phoenician, a Gentile. Someone from this area in the middle east who had been Hellenised. She most likely spoke Greek and had been immersed in a Greek cultural world-view. We are told had heard about Jesus. Clearly Jesus fame had spread throughout this whole region. Also as we noted last week, people from this area had been mentioned as being among the crowds that came and saw Jesus. So maybe this woman had herself been among the crowds. Or possibly her friends, or other family members had told her about this amazing miracle worker. She is very much in need of a miracle for her young daughter. Her daughter we are told had been possessed by a demon.

The exchange this woman has with Jesus is very interesting. It is in a way a battle of wits in which the woman very much holds her own. When she first approaches Jesus and asks Him to help what is the Lord's response? He tells her that the children should be filled first, that it wasn't good to take the families food and throw it to the dogs under the table. On the surface this response sounds very offensive. It appears as if Jesus is comparing this woman to a dog. This after all was what most Jews thought about Gentiles. That they were no better than filthy dogs. But Jesus we would expect would be above such things. We rightly think of Him as a man of peace and love. As I explained last time the key to understanding Jesus' words are bound up in **context** and **language**. The context is the family dining table. The family at the table are the Jews. God's chosen people. Jesus was sent to these people first. They are to be fed on the message of the gospel first.

The important language point we need to note is the word Jesus uses to describe the dogs under the dining table. There were two words the Greeks used to describe dogs. One word, *kunarium* (koo-nar'-ee-on) was used to describe little dogs or puppies. The kinds of dogs that we have as pets in the house. Cute, friendly and adorable. The other less positive Greek word was *kuon* (koo'-ohn). It also means dog. But it was most commonly used to describe street dogs, or wild feral dogs. The kinds of dogs that get into garbage, roam around in packs and can be scary. So which kind of dog word did the Lord Jesus use? Jesus describes this woman as a little dog. The friendly family pet. It was not an offensive term, and most importantly she was not offended by it. Her reply to Jesus demonstrates great wit, perception and humility. As a Gentile she knows that she has no place at the table. She has no right to the food been given to the children (the Jewish people). However even little dogs that live in the house have some rights. They have the right to eat any scraps or crumbs that fall from the table.

It is the perfect answer and Jesus blesses her by telling her to return home where she will find her daughter cured.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Her persistence and faith paid off.

오늘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설교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와 수로페니키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예수께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여행하신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근거지를 두고 북이스라엘에서 시간을 보내셨지만 여기에서 북쪽으로 약 40 마일을 여행하셔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두 유명한 도시는 시로 페니키아로 알려진 로마의 시리아 속 주와 페니키아의 일부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떠나신 정확한 이유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짐작이나 합리적 추측을 하게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식처럼 사람들을 □□□□□□□□.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셨지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쳤을 것이라고 □□□□. 그렇다면

그분이 휴식과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분은 지상에서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복음 사명을 수행할 팀을 훈련하고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고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 머물 집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들만의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방에 관한 뉴스가 퍼진 것 같습니다. 곧 한 여인이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그녀를 그리스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이것은 그녀가 원래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실 Syro-Phoenician,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레니즘화되었던 중동의 지역에서 온 그녀는 아마도 그리스어를 말했고 그리스 문화 세계관에 젖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이 지역 전체에 퍼졌겠죠. 또한 지난주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왔던 군중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자도 그 군중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녀의 친구나 다른 가족들이 그녀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일 에 대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을 위한 기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녀의 딸은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화는 자혜의 싸움입니다. 그녀가 처음 예수님께 다가가 도움을 청했을 때 주님의 응답은 어땠죠? 그는 그녀에게 아이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하고, 가족의 음식을 가져다가 아래에 있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외견상으로 이 반응은 매우 불쾌하게 들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러운 개나 다름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그러한 관념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사랑이 십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문맥과 언어에 묶여 있습니다. 이 비유의 문맥은 가족의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에 앉은 가족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들이 먼저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언어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식탁 아래 있는 개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리스인들이 개를 묘사하는 데 사용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Kunarion (koo-nar'-ee-on)이라는 한 단어는 작은 개나 강아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애완동물로 기르는 종류의 개들 귀엽고 친절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좀 더 부정적인 두 번 째 그리스어 단어는 쿠온(koo'-ohn)입니다. 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길거리 개 또는 야생 개를 묘사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개들은 무섭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개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작은 개로 묘사하셨습니다. 친절한 가족 애완동물. 그것은 공격적인 용어가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것에 대해 불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위대한 자치, 통찰력 및 겸손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녀는 자신이 식탁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아이들(유대인)에게 주어진 음식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작은 개로도 약간 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대답이며 예수님은 딸이 고침을 받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녀를 축복하십니다. 그녀의 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31 Again, departing from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He came through the midst of the region of Decapolis to the Sea of Galilee.

This particular healing account is only found in Mark's gospel. Mark, I think has very carefully and deliberately placed it here in His account. We should remember that the gospels writer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are highly selective in what they include. They could not realistically include accounts of everything the Lord Jesus said and did. John even concludes his gospel by telling us this (John 21:25). So this miracle story is strategically placed. We find it sandwiched between the conversation with the Syro-Phoenician woman and the feeding of the 4000. The woman remember was a Gentile. The conversation Jesus had with her centred on what, by rights she was entitled to receive. As a Gentile she was not at this present time entitled to her full reward. The gospel message

had come first to the Jews. Increasingly they had chosen to reject it. So now it was being proclaimed to Gentiles. The little dogs under the table were to be fed. The woman as a result received God's grace and mercy. Now, a man, probably another Gentile will have his ears opened to hear the good news, and his tongue loosed to proclaim God's glory. Mark's point is obvious. The message of good news was now being opened up to all people. Let us get back to the account.

After an undisclosed period of time in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Jesus leaves. He travels through the area of Decapolis before arriving at the Sea of Galilee. Much has been made over the years regarding Jesus' journey here. The issues have centred around the route that Jesus takes. If you look at the map you must agree that its a very circuitous way to get from Tyre to the Sea of Galilee. One commentator I read estimated it to be a journey of around 120 miles (193 km) in length.

Some have used this to discredit Mark. They use it as evidence to prove that Mark did not know the geography of Palestine. If you can discredit John Mark as the author you can claim that the gospel is not authentic or accurate. I think it proves nothing of the sort. Mark knew the geography well enough, and he is accurately recording the route the Lord Jesus took. Jesus intentionally took this longer journey. Perhaps He wanted to spend some time in predominantly Gentile areas. So its quite possible that Mark is summarising a much longer journey for the ease of his readers.

The Lord Jesus travelled down and through the area of Decapolis. This mostly Gentile area comprised ten cities. This was of course where the name comes from; *Deka* meaning ten and *polis* meaning city. Of the ten cities, only one, the capital Scythopolis, lay west of the Jordan River. The other nine were on the eastern side of the Jordan. Following the defeat of Syria by the Roman general Pompey in 65 BC these cities had formed a league together. They answered directly to the Roman governor in Syria and because they were loyal to Rome they enjoyed a degree of freedom and independence. The people living here had been Hellenised and there was a strong Greek influence running through the culture. Let us read on.

이 특별한 치유 기록은 마가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가가 매우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복음서 저자들이 무엇을 기록할 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행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전부 다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복음서를 결론 짓기까지 합니다(요21:25). 그래서 이 기록의 이야기는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수로 페니키아 여인과의 대화와 4000 명을 먹인 일 사이에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와 나눈 대화는 그녀가 받을 권리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녀는 현재 완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복음 메시지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복음을 더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작은 개들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 사람, 아마도 또 다른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스토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은 떠납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데카볼리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여정에 관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두로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기까지 빙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읽은 한 주석가는 길이가 약 193km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마크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가가 팔레스타인의 지리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저자인 요한 마가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복음이 정통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런걸 증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더 긴 여행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는 주로 이방인 지

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가 독자의 편의를 위해 훨씬 더 긴 여정을 요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

주 예수님은 내려가서 데카폴리 지역을 통과하여 여행하셨습니다. 대부분 이방인인 이 지역은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름의 유래입니다. Deka는 10을 의미하고 polis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열 개의 도시 중 단 하나의 수도인 스키토폴리스만이 요단 강 서쪽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아홉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기원전 65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시리아를 패배시킨 후 이 도시들은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의 로마 총독에게 직접 응답했으며 로마에 충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유와 독립을 누렸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헬레니즘화되었고 그들 문화는 그리스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계속 읽어 보십시오.

32 Then they brought to Him one who was deaf and had an impediment in his speech, and they begged Him to put His hand on him.

The exact location for this miracle is not given to us. Mark is very vague. All we know is that it was somewhere in the Decapolis region near to the Sea of Galilee. In this place a group of people (his friends or family members) bring a deaf man to Jesus. Was this man a Gentile or a Jew living close to the Sea of Galilee? We have no real way of knowing. I am inclined to believe that he was a Gentile.

My reasoning being that Mark is using this story to demonstrate how the gospel is being opened up to the Gentiles. What exactly was wrong with this man?

Mark tells us that he was deaf (*kōphos*) and had a speech impediment (*mogilalos*). The man's hearing loss was absolute. He was unable to hear any sounds. The reference to his speech impediment is interesting. This Greek word is only used once in the whole New Testament. However it also appears once in the Septuagint. This of course is the Greek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Here it appears in Isaiah 35:6.

**Then the lame shall leap like a deer,
And the tongue of the dumb (*mogilalos*) sing.
For waters shall burst forth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desert.**

What is Isaiah speaking about here? He is predicting how when the Messiah comes he will loose the tongues of the dumb (*mogilalos*). So once again Mark is calling upon us to consider the identity of the Lord Jesus.

The implication then seems to be that this man can speak a little but not correctly or not properly. Some argue that this means he was not born deaf. He just lost his hearing at some point after he had learned to speak. The people who have brought this man beg Jesus to lay His hands upon him and heal him of this affliction. What will Jesus do? Let's find out.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갈릴리 바다 근처의 데카폴리스 지역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가족의 친구들)이 귀머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 가까이 사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이방인이었다고 믿습니다.

제 추론은 마가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마가는 그 사람이 귀머거리(*kōphos*) 였고 언어 장애(*mogilalos*)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완전히 귀가 먹고 어

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언어 장애에 대한 언급은 흥미롭습니다. 이 할라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70 인역 성서에도 한 번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데 이사야 35:6에 나옵니다.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mogilalos)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병어리(모길로스)의 혀를 풀게 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마가는 우리에게 주 예수가 누구신지를 □□□□ 보라고 촉구합니다. 이 병자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는 아니지만 말을 조금은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구마거리로 태어나지 않았고 말하기를 배운 후 어느 시점에서 청력을 잃었을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께 손을 얹어 이 병에서 □□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알아봅시다.

33 And He took him aside from the multitude, and put His fingers in his ears, and He spat and touched his tongue. 34 Then, looking up to heaven, He sighed, and said to him, “Ephphatha,” that is, “Be opened.” 35 Immediately his ears were opened, and the impediment of his tongue was loosed, and he spoke plainly.

These verses outline for us how the Lord Jesus dealt with this man. His approach on this occasion was a little curious or unusual. However, with that being said it's worth noting that throughout His ministry, Jesus used a variety of ways to heal. It seems as if He tailored the healing process in ways that were significant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eople involved. The methods He used may seem strange or weird to us today. But to the people and culture of Jesus day they held meaning and significance.

There is another good reason for this variety. Jesus didn't want people to think that the healing came about through some sort of “magic.” Practitioners of sorcery or magic follow set patterns or procedures that they believe will bring about a desired outcome. The “magic” is achieved through following a precise set of actions or words. Jesus power came through who He was. Therefore in varying the way he healed He was demonstrating that it was Him, and not the method that brought about a healing. Let us consider the steps Jesus took.

Firstly we are told that Jesus took this man away from the crowd. Perhaps Jesus wanted this man to be better able to focus his attention on what was about to happen. Maybe the jostling crowds made it difficult for Jesus to properly interact with this man. Or perhaps Jesus is making a special point by signaling this man out and drawing him aside. By doing so He is highlighting that this man is a unique individual. He is not just a face in a crowd. God loves and cares for all of His creatures. Just as an earthly father loves each of his children and recognizes them as being unique and special so God loves and cares for each one of us.

Secondly Jesus puts His fingers in the man's ears. We must remember that this man was deaf. Jesus could not simply speak and tell him what He was doing. A physical response was needed. The man's friends had asked for Jesus to lay His hands upon the man. Here Jesus went beyond that.

He inserted His fingers into the man's ears. We cannot say for sure why the Lord did this.

Was it to demonstrate where the problem lay and that He had the power to cure it? Was it to mime to the man that his hearing was “blocked” but Jesus was about to remove that blockage?

Thirdly, the Lord Jesus spat and touched the man's tongue. Yes, this is the part that most people make a face and say something like, Uggh! Or gross! Mark does not say where he spat. Either He spat onto the ground and then with the spittle and dirt touched the man's tongue. Or He spat into His own hand and then touched the man's tongue with the spittle. Today we don't consider spit to be clean or pleasant. Spitting is rightly seen as a vulgar thing to do. In most cultures to spit on someone is considered more offensive than even punching or kicking them. However in both the Greco-

Roman and Jewish world spittle was believed to have a therapeutic benefit. This was especially true so the Jews believed if the person applying the spittle was special or had been gifted by God.

The Roman writer Pliny the Elder, writing in the first century, said that spittle could help heal certain skin diseases, epilepsy, neck pain, and numbness in the limbs. So perhaps in spitting and applying the spittle Jesus is demonstrating to this man where the problem lies and that He has the power to fix it.

Fourthly, the Lord Jesus looks up to heaven. This indicates that Jesus is either seeking power from heaven or acknowledging that the power for this healing is coming from God. Remember that since this man was deaf he would know little or nothing about Jesus. He could not have heard Him preach or teach. So in looking up to heaven Jesus is directing this man to where this healing originates.

Fifthly, and finally Jesus sighs and then gives an oral command. Sighing (*stenazō*) does on occasion appear in ancient magic. However here Jesus transformed it into something quite different. In Judaism, sighing expressed deep distress of spirit and often led to prayer. So in sighing here Jesus is inwardly and outwardly expressing His genuine sorrow with human suffering. When the six days of creation God looked at what He had done and said it was good. It was a perfect and beautiful place for human beings to live. In rebelling against God, and going our own way we brought sin into this world. So when Jesus arrived at the tomb of Lazarus and on this occasion He groans because this was not what God intended. Death, sickness and suffering were not part of the original design.

Mark records for us the Aramaic word that Jesus uttered, “Ephphatha,” translated as “Be opened.” As I have said before Aramaic was the common language of this part of Palestine. Perhaps the man could read lips. Certainly he would have been carefully watching everything Jesus did. The utterance of this word served as the moment for the miracle to take place. Immediately we are told the man could hear and speak properly. There was no period of time in which the man struggled to speak or hear clearly. It was instantaneous and perfect. Let us see what happens next. Applying the spittle Jesus is demonstrating to this man where the problem lies and that He has the power to fix it.

Fourthly, the Lord Jesus looks up to heaven. This indicates that Jesus is either seeking power from heaven or acknowledging that the power for this healing is coming from God. Remember that since this man was deaf he would know little or nothing about Jesus. He could not have heard Him preach or teach. So in looking up to heaven Jesus is directing this man to where this healing originates.

Fifthly, and finally Jesus sighs and then gives an oral command. Sighing (*stenazō*) does on occasion appear in ancient magic. However here Jesus transformed it into something quite different. In Judaism, sighing expressed deep distress of spirit and often led to prayer. So in sighing here Jesus is inwardly and outwardly expressing His genuine sorrow with human suffering. When the six days of creation God looked at what He had done and said it was good. It was a perfect and beautiful place for human beings to live. In rebelling against God, and going our own way we brought sin into this world. So when Jesus arrived at the tomb of Lazarus and on this occasion He groans because this was not what God intended. Death, sickness and suffering were not part of the original design.

Mark records for us the Aramaic word that Jesus uttered, “Ephphatha,” translated as “Be opened.” As I have said before Aramaic was the common language of this part of Palestine. Perhaps the man could read lips. Certainly he would have been carefully watching everything Jesus did. The utterance of this word served as the moment for the miracle to take place. Immediately we are told the man could hear and speak properly. There was no period of time in which the man struggled to speak or hear clearly. It was instantaneous and perfect. Let us see what happens next.

이 구절은 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번에 접근하시는 방식은 약간 이상하거나

이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 기간 내내 치유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은 관련된 사람들의 □□□□ 중요한 방식으로 치유 과정을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사용하신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문화에는 그것들이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다양성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가 일종의 "마술"을 통해 온다고 사람들이 □□□□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술이나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정해진 패턴이나 절차를 따릅니다. "마법"은 일련의 정확한 행동이나 말을 따라가면 달성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통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치유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치유를 가져오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치유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추하신 단계를 □□□□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사람을 무리 중에서 데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더 잘 집중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밀집된 군중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과 적절하게 교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어 옆으로 □□□□□□ 특별한 점을 지적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 사람이 독특한 개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있는 단순한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귀머거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단순히 말하거나 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신체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그 사람에게 안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이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고 그분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청력이 "막혔지만" 예수께서 그 막힘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세 번째로 주 예수님은 침을 뱉으시고 그 사람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으악! 더러워!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마가는 그가 어디에 침을 뱉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시고 침과 흙을 그 사람의 혀에 대셨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의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 사람의 혀에 대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침을 깨끗하거나 유쾌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침을 뱉는 것은 당연히 저속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 것은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보다 더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Greco-Roman과 유대 세계에서 침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사실이어서 유대인들은 침을 바르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1세기에 로마 작가 플리니우스는 침이 특정 피부 질환, 간질, 목통증, 사지 마비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침을 뱉고 그 사람을 만진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곳과 문제를 고칠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주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권능을 구하시거나 이 치유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은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는 그분이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께서는 이 치유가 시작되는 곳을 가르키고 계십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숨을 쉬신 다음 명령 하십니다. 한숨(stenazō)은 때때로 고대 마법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셨습니다. 유대교에서 한숨은 심령의 깊은 고통을 표현했으며 종종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숨을 쉬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함께 그분의 진정한 슬픔을 안팎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살기에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 이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탄식하셨습니다. 죽

음, 질병 고통은 원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람어 "에파타"를 "열려라"로 번역했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아람어는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의 공용어였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는 입술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즉시 우리는 그 사람이 제대로 듣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가 명확하게 말하거나 듣기 위해 애쓰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고 완벽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36 Then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tell no one; but the more He commanded them, the more widely they proclaimed it.

The Lord Jesus commanded both the man, and presumably those that had brought him to keep what had happened a secret. We have seen this motif in a number of Mark's accounts. For reasons we have spoken about before Jesus wanted to minimise or control the publicity He was receiving. This though was in a Gentile area and it was probably a Gentile man who was healed. So probably here the worry was not related to the religious leaders finding offence with what He was doing. On this occasion it may either be connected to people getting the wrong idea about Jesus, or to avert massive crowds from thronging Him. Jesus did not want people only to seek Him out because He could perform miracles or do something for them. This was an issue for both Jews and Gentiles. Instead, He wanted them to come to hear His words and be transformed.

Also constantly being surrounded by clamouring people made it difficult to properly teach. However as we have seen on other occasions people do not listen to Jesus' commands. The more they are told to keep things quiet the louder and more enthusiastically they share the news. I suppose we can understand their excitement. What they had witnessed was something truly outstanding. Let us conclude today's passage with verse 37.

주 예수께서는 그 사람과 그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비밀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여러 기록에서 이 동기를 봤죠. 여러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통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고 아마도 고침을 받은 사람도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걱정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난 군중이 그분에게 몰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거나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찾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껌 시끄러운 사람들에 둘러싸여 제대로 가르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 껌, 더 열정적으로 소식을 전했죠. 그들의 흥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죠. 3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7 And they were astonished beyond measure, saying, "He has done all things well. He makes both the deaf to hear and the mute to speak."

Mark ends his account by telling us again about how the people were amazed beyond amazement at what they had seen. The people clearly recognized that they had witnessed something exceptional. Something so out of the ordinary that it could not be explained.

Today of course we would rightly say that they had been in the presence of God Himself. Of course, they had seen something amazing. Jesus never did anything poorly or in a shoddy way. We might think back here to the conclusion of creation (Gen 1:31). God surveyed all that He had created and said what? "I might have done that better!" No, Or "If I had another chance I might redesign the camel!" No. God looked at what He had done and declared it to be good. Here is what scripture

says.

Then God saw everything that He had made, and indeed *it was very good*.

The people conclude that Jesus had been merciful and kind to those afflicted. As we have seen those that were sick, lame, diseased, blind, deaf, demon possessed came to Jesus and He showed them compassion and mercy. What a wonderful way to end. To think and reflect on the compassion and mercy of our one and only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o him be honour and glory for now and evermore.

마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광경에 얼마나 놀랐는지 다시 한 번 말하면서 이야기를 □□□□. 사람들은 그들이 예외적인 것을 목격했음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하지 않은 것이었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임재 안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어설피거나 조잡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의 결론을 □□ 볼 수 있습니다(창1:3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살펴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더 잘했을지도 몰라!" 아니요, 또는 "기회가 또 있다면 □□ 다시 디자인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하신 일을 보시고 좋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들은 예수께서 고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지비롭고 친절하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귀신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그들에게 공훈과 자비를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분의 연민과 자비를 □□□□ 목상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니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존귀와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Astonished by Jesus

One of the things that can happen when we see something over and over again is that we become jaded or less impressed. Lionel Messi for example is considered by many to be one of the greatest footballers of his generation. At his peak he would produce exceptional displays every week. He scored lots of goals, he dribbled the ball impressively, or he set up goals for his teammates. I wonder what the effect was of watching him play every week. I muse over whether the fans always appreciated his brilliance. Or perhaps over time it became commonplace, ordinary or normal.

I also wonder at the reactions people had to Jesus. After they had seen Him cure someone else who was crippled, lame, blind, deaf or demon possessed what did they say, "Oh, He always does that. It's a normal thing for Him to do." Sadly I think many of them must have thought like this. They never looked beyond the miracles and so over time the miraculous just became hum-drum or normal.

What about our attitude and response to the Lord Jesus. Has He become normal or ordinary to us. It is hard sometimes in our long Christian walk to maintain that fire and passion. Have we become a little cold of late? Has Jesus, and what He did become a bit normal? Have we become a little jaded? Are we in need of being stoked once again. The people we read about today were amazed beyond amazement at what Jesus did. That should be the way we feel. When we think about Jesus, and He should be at the centre of all we think and do.

We should be amazed, awestruck, astounded, awed, overwhelmed, thunderstruck, bowled over and open-mouthed. He is not someone to feel neutral or apathetic about. May we always be astonished

by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우리가무언가를 계속해서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우리가 싫증이 나거나 덜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오넬 메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간주합니다. 그의 절정에 그는 매주 뛰어난 디스플레이를 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골을 넣었고, 공을 인상적으로 드리블했으며, 팀원들을 위해 골을 설정했습니다. 매주 그의 플레이를 지켜본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팬들이 항상 그의 높이 평가했는지 궁금이 .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평범해졌습니다.

저는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절름발이, 눈먼 자, 귀먹은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본 후에 “오, 그는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슬프게도 저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것이라고 . 그들은 기적을 넘어선 것을 결코 보지 않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적은 단지 힘 드림이나 정상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평범하거나 평범한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의 가나인 그리스도인 행보에서 때때로 그 열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요즘 좀 차가워졌나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이 조금 흔한 일이 되었나요? 우리가 조금 지쳤나요? 우리는 다시 한 번 기뻐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놀라움을 넘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때, 그분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고, 경외하고, 경악하고, 두려워하고, 압도당하고, 엎드려 입을 벌려야 합니다. 그는 중립적이거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 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놀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God's redemptive plan

In today's miracle account we see God's plan for the salvation or His creation play out. The man in the story was deaf and unable to speak properly. His conditions existed because of the fall. When human beings rebelled against God one of the consequences was sin, sickness and death. The reason we suffer here on earth is because of sin. We have no human remedy for this. Doctors and the advances of modern science can only do so much. We might be able to live longer and enjoy an enhanced quality of life, but we all still die. What are we do? Where are we to turn? The man's friends or family in the story bring him to the feet of Jesus. They have faith that He can do something to heal their friend. He was indeed able to do something. He provided redemption in healing to this man of his deafness and inability to speak. The Lord Jesus has this power and authority. He is the cornerstone of God's plan to redeem His people.

The gift of His salvation is offered freely to you. You can try to save yourself. You will fail. The reason why is simple. You will never meet God's expectations. Only perfection is accepted. Good or even very good wont cut it. Or you can fall to your knees and humbly confess your sins before God. You can own up to the fact that you are a miserable and wretched sinner. You can repent of your sinful life and endeavour to turn away from your sins and reorient yourself in God's direction. Finally, you must put your faith in Jesus Christ. You must accept Him as your Lord and savior. The Lord Jesus Christ does all things well. We see this in creation but even more so in God's amazing redemptive plan.

오늘의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는 구원 또는 그분의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이야기 속의 남자는 귀머거리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타락으로 인해 존재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 결과 중 하나는 죄와 질병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인간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의사와 현대 과학의 발전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고 향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죽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이

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의 친구랑 가족들이 그를 예수님의 발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를 치유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귀머거리와 말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치유의 구속을 베풀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선물은 당신에게 무료로 주어집니다. 자신을 구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벽함만이 인정됩니다. 인간 기준에서 아주 좋아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삶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키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에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